



市政新聞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19면)



박지효 의원(왼쪽 첫번째)과 채승우 의원(왼쪽 두번째)이 개롱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송파구의회 채승우·박지효 의원, 현장 의정

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과 박지효 의원은 18일 오전 지역구 내 주요 근린공원 3곳을 방문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역 주민들이 공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송파구청 관련 부서와 소통을 거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두 의원은 개롱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 내 두담이공원, 거여근린공원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점검을 마친 후 박지효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일

상과 밀접한 공간에 불편이나 안전 위해 요소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함께 현장을 살핀 채승우 의원 역시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며 뜻을 모았다.

한편 채승우 의원과 박지효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구청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예산 확보 및 개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홍준성 기자 / roff1116@naver.com